

2013. 5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MBC

2013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국	
2013.5.28.	대전MBC 대회의실	9/10	5	

- 시청자위원 불참자 명단: 송인덕 위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차태현 방송기술센터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15	-	-	21	-	21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5	15	1	21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4건	4건	4월
교양	'토크앤 조이' 출연자 프로필 노출빈도수 증가해주길	'토크앤 조이' 출연자 프로필 노출빈도수 증가	4월
교양	'시사플러스' 자막 통일 해주길	'시사플러스' 자막 통일	4월
교양	'시사플러스'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제작PD 중요사안은 직접 밝혀주길	'시사플러스' 스튜디오 출연 PD역할 중요사안 영상처리보다 PD가 언급	4월
교양	'공간 다큐멘터리 그곳' 제작방향 시사다큐처럼 제작 안되게 유의	'공간 다큐멘터리 그곳' 제작 휴머니즘 시선으로 제작	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11일 허참의 토크&조이 「계족산 황톳길의 창시자, 선양 조용래 회장」 편이 방송되었다. 허참의 토크&조이에서는 대전의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 잡은 계족산 황톳길의 창시자인 선양 조용래 회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p> <p>창조적인 문화 콘텐츠 선정과 시민의 입장에서 공연과 축제 개최와 같은 다양한 활성화 노력을 통하여 조용래 회장이 계족산 황톳길을 대전의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한 모습은 시청자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특히 본 편에서는 평소의 실내 스튜디오가 아닌 계족산 야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여 캠핑 하는 듯 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으며 본 편의 주제와도 부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출연자의 일방적인 인터뷰가 아닌 진행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출연자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황톳길을 걷는 시민들의 인터뷰의 모습을 통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본 편은 그동안 허참의 토크&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끔 보였던 경직되었던 진행 모습에서 탈피하여, 프로그램 이름과 같이 즐거운 토크쇼로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 준 좋은 예가 되었다고 생각 된다. 바람이 있다면 출연자의 디테일한 모습(얼굴 클로즈업, 손동작, 몸짓)을 토크의 내용과 연결해 영상구성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다(오덕성).</p>	<p>좋은 지적과 칭찬에 감사한다. '허참의 토크&조이'는 항상 시청자의 입장에서 훈훈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왔다. 좋은 계절을 맞아 그동안 스튜디오에서 진행해 왔던 방식을 탈피해 출연자에 맞는 현장에서의 진행을 꾀하고 있다.</p> <p>그리고 지적해 주신 출연자의 디테일한 모습은 제작진과 상의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TV특강 「불굴이 만든 창의의 세계」 편을 보았다. 늘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TV특강이 이번에도 한 사람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선</p>	<p>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작가와 담당PD에게 지적해 준 내용을 전달하겠다. 프로그램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적인 맥락을</p>	<p>편성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택과 결정을 통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려주었다. 현 상광에 만족하고, 작은 달콤함에 빠지면 다른 도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p> <p>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의(임항택 명장) 일화를 시대별로 설명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초반부에서는 흥미를 유발하였다. 유년시절부터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학생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본인으로써는 학생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에게 조금은 어렵고 생소하게 여겨졌던, '도자기'에 대한 실제 경험담을 통해서 '도자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p> <p>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본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본인의 진정한 꿈을 위해 늘 고민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꿈을 결국 이루에 내는 유익한 내용이었으나 본인의 소소한 일화까지 세세하게 언급하는 진행으로 인해 중·후반부에는 집중도가 저하되었다(오덕성).</p>	<p>잘 짚는 형태의 구성이 되도록 하며 강의형식을 빈 강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작에 유의하겠다.</p>	
교양	<p>시사플러스(5월 15일)에서 「장학사가 뛰길래, 위기의 충남교육/당진현대제철 '죽음의 섯공장」」편을 다루었다. 시사프로그램은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 취재하여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현대제철사고와 같은 주제는 보는 이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시사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다. 사건의 피해자인 하청업체 직원들, 즉 약자의 입장에 서서 사건의 진상을 고발하고 문제의 핵심을 되짚어주었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였</p>	<p>PD가 직접 출연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함이다. PD의 역할이 보다 커보이도록 제작진과 충분히 상의해 반영하도록 하겠다.</p>	<p>편성 수용</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고, 정부와 사법당국,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에 책임을 묻는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이다.</p> <p>다음으로 충남교육 장학사 비리 문제를 다루었는데, 영상을 먼저 보여준 후에 진행자와 취재 PD가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진행자는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랑들을 대신 질문하였고, 취재한 PD가 직접 대답을 해주어서 신뢰감을 더할 수 있었던 듯싶다. MC의 질문에 PD의 답변이 어떤 때는 간략 단순하게 처리될 때도 있어 스튜디오에 출연한 PD의 역할이 작게 보일 때도 있었다 (오덕성).</p>		
교양	<p>시사플러스 「길 잃은 백제역사재현단지」편(5월 24일)을 보았다. 전체 인구 7만명 정도 규모에 불과한 부여읍에 대규모 아울렛 매장과 함께 대형마트 개발로 인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과의 상생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최근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역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백제역사문화 재현단지가 민자 유치 문제로 인해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지역발전이나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대기업 특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적해 주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민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재현단지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에서 출발하여,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공사비용 지원 재현단지에 대한 운영권까지 말김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 등은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무슨 혜택과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없음을 지적</p>	<p>‘길 잃은 역사재현단지’는 제작진의 끈질긴 취재근성과 열정이 일궈낸 성과라 여겨진다. 언급하신 대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관계가 생각나는 시의적절한 아이템이었다고 자평한다.</p> <p>말씀하신대로 매주 두 아이템을 고정화하고 있지 않다. 필요시 하나의 아이템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p> <p>이런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정진하겠다.</p>	편성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한 점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p> <p>마지막으로, 대기업 자본 유치를 통해 새롭게 시설을 정비하려는 대전의 엑스포 과학 공원 재창조 사업에 있어서도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서 매우 유익한 정보의 제공이었다. 이렇게 심층적인 내용이 필요할 경우 이번 주도 그렇게했지만 두 개의 주제를 갖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 보다 시사플러스 전체를 하나의 테마를 갖고 프로그램 구성을 하길 바란다(오덕성).</p>		
교양	<p>생방송 아침이 좋다(5월 8일)를 시청하였다. 어버이날이라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아이টে을 기대하였는데 MC 의 오프닝멘트 이외에는 프로그램 코너 구성에는 일체 없어 아쉬움을 갖는다. 자막 처리를 하는데 있어 한자가 나왔다. “00이 배가되었다” 배가 이 부분을 한자로 처리했는데 유독 이 부분만 한자로 처리 할 필요가 있었는가?</p> <p><열린 마이크 할 말 있습니다> 코너에서는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에 한전 송전탑 설치 문제로 마을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담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 의견과 더불어 한전 측의 입장, 이에 대한 관계당국 입장, 등도 같이 취재를 담아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더욱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MC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멘트가 참 무성의하게 들렸다. 여자 진행자의 경우 특히 시청자 사연 소개를 낭독하는데 자주 더듬거리는 것이 노출되어 프로그램 완성도를 떨어트린다. 좀더 훈련이 필요하다(유덕순).</p>	<p>어버이날 관련 아이টে이 없는 부분은 아쉽다. 다음부터는 시의에 맞는 아이টে을 제작하도록 하겠다. <열린 마이크 할 말 있습니다>는 금요일 날 해당 기관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한전측의 촬영 비협조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해당기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편성 의견참고
보도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과피범, 불량식품 등을 다루는 뉴스프로그램 제작을 기대한다(유덕순).	학교폭력과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심층, 기획보도 주력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도하겠다.	보도 수용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교양	<p>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에 저장되어 있다. 5월 10일 시사플러스에서 이 문제(안정성)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히 추적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사 문제도 시사플러스에서 다룬만한 소재로 본다. 유념해주면 좋겠다(장동환).</p>	<p>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은 대전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후속보도를 준비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사문제는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나 대전시가 최종적으로 매입의사를 밝혔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5월 10일 시사플러스에서 다룬 “핵기지 대전 불안한 시민들”편을 보고 프로그램 제목을 이렇게 뽑아도 좋은지 의문이 들었다.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극한적인 표현 보다 부드러운 표현으로도 제작자의 입장을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원자력발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산업발전이 어려웠었기 때문에도 그렇다(김명수).</p>	<p>‘핵기지 대전, 불안한 시민들’ 부제는 다소 강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앞으로는 보다 세심하게 부제를 선정하도록 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5월 24일 시사플러스 “길 잃은 백제역사재현단지” 편을 보았다. 이완구 전 도시사 인터뷰 내용 중에 백제역사재현단지 건설에 충남도가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재원 부족분을 롯데로부터 받기 위해 롯데에게 수익성 사업(골프 등)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그 당시 이완구 지사의 의견에 반대하던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담았으면 좋았겠다(김명수).</p>	<p>‘길잃은 역사재현단지’는 당시 광역단체장, 시민단체, 해당 공무원, 신문기자,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녹여냈다고 생각한다.</p>	<p>편성 반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p>시사광장에서 “과학벨트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대전지역 여야 국회의원, 대학교수, 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참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 시점에 매우 적절하게 주제를 선정하였고 참석 패널 또한 좋았다. 대통령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상세하게 짚어 주었다면 더 좋은 토론이 됐을 것이라고 본다(김명수).</p>	<p>과학벨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대형 이슈들은 끊임없이 점검하고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제시에도 주력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보도	<p>지역 아젠더를 설정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뉴스에서 ‘TV민원실’을 신설하여 반가웠다. 심층성 있게 집중취재하는 뉴스를 계속하여 방송해주길 바란다(김형주).</p>	<p>TV 민원실 외에도 지역 언론으로서 아젠더를 세팅할 수 있는 아이템과 취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교양	<p>대전을 과학의 도시라고 부르지만 실상 대전시민은 대덕밸리, 정책연구소 등을 잘 모른다. 과학도시 이미지도 제고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대덕밸리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길 제안한다(김형주).</p>	<p>대덕밸리만 온전히 담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대전이 과학의 도시이기에 이에 관련된 아이템은 각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진행자 의상에 관해 한 말씀 드린다. 5월 28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프로그램의 진행자 의상을 보면 여자진행자의 경우 밝은 계통의 붉은 색인데 반해 남자 진행자의 경우 그레이 커키 색 자켓을 입고 있어 진행자간 잘 어울리지 않는 듯 하였다(한찬희).</p>	<p>진행자의 옷은 프로그램의 첫 인상이다. 옷 코디에 대해 더욱 주의하겠다.</p>	<p>편성 수용</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보도	<p>뉴스데스크의 한 코너인 “TV민원실”이 시청자와 공감할 수 있게끔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어 좋았다. 민원실에서 제기된 지역민들의 민원이 제대로 관계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서 후속보도를 해주길 바란다(김경숙).</p>	<p>단순 비판,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식으로 어떻게 대응책이 이뤄지고 있는지 후속 보도하겠다.</p>	<p>보도 의견참고</p>
교양	<p>시사플러스에서 다룬 ‘방사성 폐기물’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성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위험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꿈의 원자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방송에서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같은 것은 예산투자 하여 연구하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들에게 단지 연구를 위한 투자비 이외 일반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성,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꿈의 원자로 연구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연구자, 혹은 과학자들의 입장도 의견을 담아 같이 비교하여 방송을 했으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김경숙)</p>	<p>지적에 공감한다.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담아내어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p>24일 시사플러스 “길 잃은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방송된 인터뷰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1세기 행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백제역사단지의 지역민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소 아쉬운 점은 타역사재현단지의 유사 사례 이틀테면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국내 타지역의 사례는 어떠한지 비교해서 구성을 했다면 더욱 좋았으리라고 본다(김경숙).</p>	<p>언급하신대로 국내에 유사 사례가 있었으면 시청자들이 공감하기 쉬었을 것이나 국내에 비슷한 사례가 마땅치 않았고 외국의 사례는 현실적으로 취재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비교, 분석하도록 노력하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교양	<p>시사플러스의 5월 10일의 “핵기지 대전, 불안한 시민들”편을 보면 방사성 폐기물의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었다.</p>	<p>부제 선정에 더욱 신경쓰겠다.</p>	<p>편성 의견참고</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타이틀에서 갖는 <해가지>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시청자들에게 선입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본다. 타이틀을 조심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본다(김영광).		
교양	토크 앤 조이 여자 진행자인 김보은 아나운서의 마지막 고별방송에서 남자 진행자인 허참씨가 꽃다발을 주면서 포옹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꽃다발을 주는 선에서 끝났어야 하는데 포옹하는 모습은 불필요한 영상으로 보였다(김영광).	제작진이 감정적으로 너무 동화 된 듯하다. 앞으로 주의 하겠다.	편성 의견참고
보도	바야흐로 대전지역 지상파 3사의 토론 프로그램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같은 요일 동시간대에 KBS, MBC, TJB 3사가 같은 장르 토론 프로그램을 놓고 상호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전MBC에서는 5월 23일 시사광장에서는 복지공무원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을 짚어보고 있다. 출연진을 보면 대학교수, 복지관장, 시민단체 사무국장, 센터장 등이 출연한 반면 상대방사인 KBS대전에서는 “새정부 교육 과제 꿈과 끼를 말한다”라는 주제를 갖고 교육부 장관, 대전시 교육감이 출연하여 토론을 펼쳤다. 해당 주제에 따라 패널들을 섭외 하겠지만 중량감 있는 패널을 스튜디오에 초대하여 토론을 펼치면 무게감이 달리 보인다. 유념해 주길 바란다(김영광).	사안별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섭외하겠다.	보도 의견참고
보도	청년취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박희원).	청년취업 일자리 창출등을 소재로 한 패자부활전 기획 취재중이다.	보도 수용
교양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현장을 가 보았다. 원자력연구원 주변 일대 유성구민들이 원전	원자력 핵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과할수록 좋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은 지역방송의 본연의	편성 의견참고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p>핵폐기물 보존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것을 보면 원전 폐기물 위험에 대한 인식을 대전시민들이 어떻게 갖고 있는지 느끼게 된다. 원자력 핵폐기물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방송사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본다(장동환).</p>	<p>의무이자 존재이유라 본다. 말씀하신대로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p>	